

월요광장

보고 싶구나, ‘한 마리 푸른 악어’여



송광룡 시인·문학발행인

머리가 무거울 때는 시집을 펼친다. 책상 모서리에 시집을 쌓아 두고 순간순간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쳐 읽는 것은 딱히 작성한 것도 아닌데 비롯처럼 되었다.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도 웬지 끌려서 불현듯이 만날 수 있는 애인 같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안다. ‘돈’과 ‘속도’의 세상에서 하루살이 가치관이 아닌가. 의도치 않게 사건이 터지고, 하기 싫어도 하지 않으면 밥을 굶을 것 같아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이를 악물고 꿈을 꾸다가, 그도 힘에 부치면 가담치도 않게 집을 싸 아예 멀리 떠나 보는 상상에 문득 진저리를 치는.

“남께서 새 나막신을 사 오셨다/ 나는 아이 좋아라/ 발톱을 깎고/ 발뒤꿈치와 복숭아뼈를 깎고/ 새 신에 발을 꼬옥 맞추었다” “발이 부르르고 피가 배어 나와도/ 이 춤을 멈출 수 없음을 예감하면서/ 남께서는 오직 사랑만을 발명하셨으니”(송찬호의 시, ‘분홍 나막신’)

존재론적으로, ‘오직 사랑만을 발명’한 입 앞에서, 우리는 그 분이 사 오신 신발에 내 발을 꼬옥 맞추는 재주를 기를 수밖에 없다. ‘발이 부르르고 피가 배어 나와도’ 살아 있는 한 ‘이 춤을 멈출 수 없음을 예감’하는 일은 슬프다. 삶은 수습되는 게 아니라 저지르는 일 밖에 다른 것이 없으리라는 예감.

출판은 작가와 독자와 편집자가 만나 이루는 관계의 망(網)이다. 서로 감응하는 관계의 그물이어야 어느 분야라고 다를까. 그 망들은 다양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의 앞뒤에는 이러저러한 원인과 결과가 지리한다.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삶은 피로하다. 실망을 만회하려 최선을 다해 볼 수는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닐 때는 상대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도 되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나.

시도 하나의 포즈다. 공간으로 치면 한 단면이요, 시간으로 치면 한 순간이다. 봄에 복사꽃이 핀다. “갑자기 울긋불긋한 복면을 한/ 나무들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바람이 한 번 불자/ 나뭇가지에서 후드득 후드득/ 꽃의 무사들이 뛰어 내려 나를 에워쌌다.” 복사아발은 공간의 한 단면이요, 복사아꽃으로 무장한 무사들이 나를 에워싸는 상황은 시간의 한 순간이다.

“나는 저 앞 곡우(霪雨)의 강을 바빠 건너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땐 술과 고기와 노래를 바쳐야 하는데/ 나는 가까스로 시 한

편 내어 놓고 물러날 수 있었다”(송찬호의 시, ‘복사꽃’)

“곡우의 강을 바빠 건너야” 하고 ‘술과 고기와 노래’를 바쳐야 하는 현실에서, ‘가까스로 시 한 편’을 내어 놓고 물러났다는 화법이 익살스럽고도 그윽하다. 나도 물러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느낀다.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는 현실에서, 시인은 물질보다는 영혼을 택한 자들이다.

학연·지연·혈연 혹은 물질만능과 계층의 사회에서, 오로지 언어만으로 제 삶과 세계의 궁극을 추구하는 자들이 시인이란 믿는다. 그러나 ‘가까스로 시 한 편’을 바치고 나서 식솔들을 건사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약속이 어저저 원인과 결과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상품을 과대포장 하는 광고 같은 말들이 눈과 귀를 지배하는 세상이다.

‘416 단원고 약전-짧은 그리고 영원한’, ‘세월호, 그날의 기억’, ‘금요일엔 돌아오렴’ 등 세월호 관련 책들은 차마 읽을 수 없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큰아이는 올 봄에 대학에 복학했다. 내가 권한 세월호 관련 책 한 권을 한 달이 넘도록 품에 지니고만 다녔다. 반응이 궁금해 물어보면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을 잊지 못했다. 슬쩍 본 그 녀석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어쩌면 잔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문학

적 표현은 단말마의 신음일 수밖에 없다. 1980년 5·18이나 1960년 4·19 직후에도 문학작품은 단말마의 비명 혹은 외침이었다. 그 단말마들을 구태여 ‘프로파간다’라고 폄하할 것까지는 없었다. 예술성이든 정치성이든, 단말마의 말들은 제 옷을 빼앗겼거나 과감히 벗어던진 맨몸뚱이들의 말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윤패하고 단상에 돌입한다. 광장으로 몰려 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삭발을 하거나 오체투지로 기어서라도 길을 가는 것은 맨몸뚱이를 드러내고 그 몸뚱이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호소다.

송찬호 시인은 절망한다. “이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만년필 끝이 어떻게 작고 짧은 삼남을 나는 여지껏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노래한다. “가끔은 이런 상념에 젖기도 하는 것이다 거품 부글거리는 이 잉크의 뉘에 한 마리 푸른 악어가 산다”(“만년필”)

김승옥 시인은 절망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노래했다. “바람은 먼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고. (“절망”)

의로운 무성하고 대답 없는 날들이다. 책상 위에는 시집들이 쌓여 간다. 그러니 더욱 보고 싶구나, “한 마리 푸른 악어”여.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17일간의 열전 막 내린 감동의 리우 드라마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오로지 그만 이 포기하지 않았다. 칼을 다시 잡더니 주문을 되뇌었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10-14로 뒤져 1점만 더 내줘도 패배하는 상황. 팬싱 예매 박상영(20·한국체대)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해서 내리 5점을 따내고 거둔 극적인 역전승(15-14)이었다. 지난해 3월 무릎 수술을 받아 ‘끝났다’라는 소리까지 들은 그였기에 더욱 빛나는 금메달이었다.

리우에서 ‘할 수 있다’는 중얼거림은 대한민국 선수단을 넘어 지구 반대편 우리의 가슴에서 크게 울렸다. 무더위에 지친, 세계 정치경제의 파고 속에 갈 길 잃은 이들은 저마다 ‘할 수 있다’고 따라했다.

리우의 전설을 쓴 골프 여제 박인비는 또 어떠한가. 잇단 부상으로 그의 2016년은 최악이었다. 사실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박인비의 도전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진짜 돌맹이보다 더 아픈 악플의 돌팔매질 속에서도 출전을 결심했다. 성적을 내지 못하면 좌인 취급을 받을 것이 틀림 없는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결국 그는 압박과 부상을 이겨내고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1900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후 116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돌아온 여자 골프에서 정상에 오르는 감각을 누린 것이다. 이와 함께 4대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그랜드슬램’에 올림픽 우승을 합쳐 세계 골프 사상 첫 ‘골든 슬램’을 달성했다. “생각보다 비난도 많이 받았고 나가지 말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후회 없이 경기해 보자...”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상대에 올라 가만가만 애국가를 따라 부르던 그도 속으로는 울컥했으리라.

17일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렸다. 한국은 금메달 9개 획득에 그쳤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우리는 연일 감동과 환희의 드라마를 보며 행복에 젖을 수 있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 실패한 손연재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약한다.

예산 낭비·허술한 행정 철저히 감독해야

광주시 산하 기관들이 혈세를 허투루 쓰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오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공공기관에서 안이한 일부 공직자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인 목적 외 사용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 결과 종합건설 본부는 12건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법안카드 결제 절차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73억 원대 동북도수터널 건설 공사를 벌이면서 취수탑 기능 보안을 위한 적외선 감지기외 기계장치 감시용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수돗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도 대충 넘어간 것이다. 예산 절약과 상관없는 골재 매각 관련 내용은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 제정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환경공단, 여성재단 등도 규정 미준수와 과도한 경비 지출이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수십 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수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아끼고 면밀한 행정을 강조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반증이다.

행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공무원들의 투철한 근무 자세가 요구된다. 감독 기관 역시 더욱 촘촘한 감시망과 함께 교육을 강화하고 신상필벌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에서 화순을 가려면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다. 광주시 동구 선교동과 화순읍 이십곡리를 연결하는 너릿재가 그곳이다. 이 재는 무등산에서 남서쪽 수레바퀴산을 거쳐 지장산으로 내려선 능선이 지나나는 곳이다.

너릿재는 지난 1971년 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눈만 오면 길이 끊기는 험준한 고개였다. 심지어 눈이 많이 오면 한 달 넘게 길이 끊기기도 했다. 터널이 생긴 뒤에도 겨울이면 차로 고개를 넘기가 어려워 사고가 빈발했고, 수시로 교통이 두절되는 취약 구간이었다.

광주는 유구하게 흘러온 남도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하는 문화예술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애꾸눈 광대’처럼 5·18민주화운동 역시 광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표적 역사문화 자원으로 우리에게는 이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문화예술의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돈을 불러 모으고 쇠퇴한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문화자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문화전당 주변이 이에 힘입어 새로운 활기를 되찾으며 문화부흥도시로의 서막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문화강국을 향한 전진만이 남았다.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광주가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해가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광복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러 가던 화순탄광 노동자들이 미군정의 총격을 받고 쓰러진 곳이다. 또 6·25 전쟁 때는 빨치산과 국군들이 대치했던 곳이며, 가깝게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때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들까지 죽음을 당했던 통한의 고개이기도 하다.

이렇듯 사연 많은 너릿재가 최근 몇 년 새 명품 숲길과 수려한 주변 풍광 탓에 지역민들이 자주 찾는 레저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선조의 항일 민족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너릿재 옛길에서 ‘제1회 8·15 광복절 기념 너릿재 옛길 역사기 마라톤 대회’를 연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도 너릿재 옛길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증가하자 최근 광주천에서 옛 너릿재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시민들의 레저 활동을 돕고 있다.

가을에는 자전거로 너릿재 옛길을 한눈 다려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법조칼럼

영화는 영화다



이은주 광주지검 검사

하고 있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에게 피 묻은 토끼인형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양갈음을 한 사람들이 단순히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은 다른 어떤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서의 ‘복수’는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 의하면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하게 하기 위

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보복범죄’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범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는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각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요소인 ‘비탄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보복범죄 중 수사 직후 또는 석방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보복범죄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복범죄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이다. 따라서, 보복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영화 주인공과 같은 삶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의 ‘복수’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친절하지 않는 ‘범죄’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고

글로벌(glocal)한 문화중심도시를 그려본다



나석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전정책본부장

상황을 지켜보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에 온 몸을 던졌다가 지금은 예술인으로 거듭난 ‘애꾸눈 광대’ 이지현씨다.

애꾸눈 광대 이지현씨와의 인연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85년 대학에 복학한 필자는 학내 민주화운동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직선제 개헌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갑갑통치와 맞서는 격정의 시대를 보냈다. 이 시기에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씨를 알게 됐다. 그는 1980년 5월 민주항쟁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어 안대를 하고 있었고 이후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문화와 예술은 그런 그에게 아픔을 치유해주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2010년 오월정신을 세상에 바로 알리고 해학으로 풀어보려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1인극 ‘5·18품바’ 공연을 시작한 것이다. 2012년부터 이씨는 자전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애꾸눈 광대’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오는 8월 24일이면 공연 100회를 맞는다. 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필자는 최근 다시 극장을 찾았다. 이 연극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80년 5월 바로 그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신명나는 광대들이 풀어내고 있었다. 관객들은 광대를 통해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80년 그날을 다시금 떠올랐다. 애이불비(哀而不瀆), 슬프나 결코 슬프지 않게 시대의 아픔을 치유와 희망의 노래로 승화시키는 공연이었다.

연극이 끝난 후 필자의 귓가에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죽지 말라는 오월영령들의 뜻이요, 살아서 투쟁하고 오월을 알리는 천지신명의 뜻이로다”는 광대의 말이 맴돌았다. 동시에 이씨와 함께 했던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과 광대의 인생, 그리고 나의 청년시절이 오버랩 되면서 가슴이 울컥해졌다. 광대의 말대로 이씨는 5·18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의연하게 살아남은 자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세계문화를 논할 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한

다. 지역의 특성을 알맹이로 삼고 이를 세계 보편의 정서와 접목시켜 현대화 할 때 글로벌(글로벌+로컬)한 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광주는 유구하게 흘러온 남도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하는 문화예술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애꾸눈 광대’처럼 5·18민주화운동 역시 광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표적 역사문화 자원으로 우리에게는 이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문화예술의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돈을 불러 모으고 쇠퇴한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문화자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문화전당 주변이 이에 힘입어 새로운 활기를 되찾으며 문화부흥도시로의 서막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문화강국을 향한 전진만이 남았다.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광주가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해가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